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2010 Digital Cable TV Show

케이블TV가 국내에서 출범한지 15주년을 맞았다. 지난 3월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0 디지털케이블TV쇼'는 그동안의 성장을 보여주듯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전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DTV 특별관'을 설치해 3D 디스플레이 풀 라인업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으며, CJ미디어와 지상파케이블PP 등 100여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하여 신규 서비스, 각종 콘텐츠,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컨퍼런스는 이틀간 진행됐으며, 방송통신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3일 오후에는 윌리엄 체 미국 NCTA 부회장, 나이토 일본 총무성 차관 등이 참석해 각국의 방송통신 산업현황과 정책방향을 설명했고, 4일에는 방송통신 산업 관련 주제로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렸다.



MVNO, 3D, 디지털 전환 ... 그리고, 과제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플랫폼의 지위를 상실한 상황에서 케이블TV는 방송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는 K-view를 내놓으며 플랫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TV는 방송시장 우위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부가 제4의 통신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 중인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참여를 공식화했다. MVNO는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주파수를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케이블TV 업계는 이 사업에 진출해 가입자를 확보하여 다매체·다채널시대의 리더로 등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케이블TV 업계는 조속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확보와 함께 HD 고화질 영상과 3D 영상 서비스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전진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다. 요즘 케이블TV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의 등장으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IPTV는 출범 1년 만에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상용서비스(2009년 1월)가 1년 정도 지난 현재 가입자 200만명을 바라보는 무서운 성장세에 있다. 유사 매체의 빠른 성장은 항상 경계해야 하는 버거운 짐이다.

또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저가경쟁 고착화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관행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중국에는 방송품질에 영향을 미쳐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케이블TV의 폭력성과 선정성은 우리나라 텔레비전 문화에 강력한 쓰나미를 예고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배우들이 요염하게 노출을 하고, 마리화나의 효능을 미화하는 등 지적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다. 잘못된 관행에서 시작된 과오들부터 정리해야 바른 전진도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